

<2017년 제38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 심사평>

예술감독제를 재도입한 후 처음으로 예술감독이 주관하여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예술감독이 주관했다는 것은 신청작 중 우수한 작품들을 선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선발의 기준을 예술감독이 제시하는 기획의 방향성에 맞춘다는 것이다. 예술감독은 심사위원들에게 ‘다양성’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서울연극제가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연극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표출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전년도와 다르게 창작 희곡은 물론 번역극에까지 참여를 개방한 것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이다. 서울연극제는 그간 우리 희곡의 창작을 독려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왔지만, 이제는 다행히 우리 희곡의 창작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들과 그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번역극의 참여는 우리 시대의 다른 형식의 글쓰기와 만날 수 있는 계기이면서, 동시에 연극의 역사 속에서 쌓인 자산들과 새롭게 대화할 기회를 준다. 그 기회는 창작자들의 것이면서 동시에 관객들의 것이다.

번역극의 참여, 그리고 재공연의 확대에 의해 단지 희곡심사에 국한되었던 그간의 방식은 변경되어야 했다. 연출의 방향과 제작 실재를 고려하기 위해 1차 선발된 작품에 한해 인터뷰 심사를 병행하였다.

신청작 총 56편 중 1차 심사 통과작은 17편이었으며, 다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10편을 선정하였다. 2016년 공식선정작이 8편이었음을 감안하면, 2017년에는 10편의 작품들의 참여로 보다 풍성해진 서울연극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대극장이 공연 3편, 소극장 공연 7편, 초연 4편, 재공연 6편, 번역 및 번안 3편, 창작 7편 등으로 선정작을 분류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주제를 담으려 했으며, 중진과 신인의 비율 혹은 창작물이 만나고자 하는 대상 관객층 또한 고려의 대상이었다.

사실 출품된 작품들 모두 저마다의 창작 열의를 지닌 작품이며, 이 중 1차 선정된 작품들과 최종 선정된 작품들간에는 작품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연극제를 보다 다양한 목소리와 색채를 담은 축제로 만들기 위해 배분된 여러 기준 속에서 10작품이 2017년을 위해 선택된 것이다. 선택된 극단이나, 다음 기회에 선택될 극단들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세상이 절망의 소리, 신음 소리, 자조의 한숨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소리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여러 갈래의 소리들이 제 목소리를 낼 자리를 서울연극제 속에 마련하려 하였다. 그러나 다양성이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고, 분명한 의지를 지닌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연극제를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당부드린다.

2016년 10월 28일
심사위원 최용훈, 조만수, 차근호